세계 최대 부동산 투자자와 파트너십

국민연금, 알리안츠 그룹과 2조8000억원 규모 조인트벤처펀드 결성 아시아 주요국 도시 핵심 부동산 물건 투자 진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투자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알리안츠(Allianz) 그룹과 해외 부동산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29일 발표했다.

알리안츠 그룹은 전 세계 70여개 국에 진출한 글로벌 최대의 보험사 중 하나이며, 운용 규모가 약 990조 원(EUR 740 billion)에 이르는 대형 기관 투자자이다. 특히, 부동산 부문 투자액은 약 99조 원(EUR 73.6 billion)이며 이는 단일 기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국민연금과 알리안츠 그룹은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약 2조 8천억원(USD 2.3 billion) 규모의 조인트벤처 펀드를 결성하고, 중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과 같은 아시아 주요국 도시의 핵심 부동산 물건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 사는 조인트벤처 펀드에 각각 50:50 비율로 참여하며, 펀드는 글로벌 부동산 지역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각되는 아시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 오피스나 물류·주거시설 등에의 투자를 목표로 하는 'Core 전략 스타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미주, 유럽 등 안정적인 선진국 위주의 투자와 함께,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 주요 선진국 및 이머징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등 해외 투자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공통된 목표(Like-minded)를 가진 글로벌 리더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투자경험 공유 등을 통해 상호역량을 강화하면서 우량 투자기회를 선점하고, 궁극적으로 기금의 장기적 수익 제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이 전주서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1사1교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1사1교 금융교육'

전북은행, 전주서중 1학년 학생 대상 내달 3일까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 관념 확립을 위해 전주서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9일부터 7월 3일까지 '1사1교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1사1교 금융교육'이란 금융회사와 인근의 초·중·고교가 결연을 맺고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전주서중학교 1학년 6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은행 영업추진부 여신지원팀 박지윤 대리가 '금융권 진로, 은행원이 되는 방법'과 '금융경제 기초'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금융권 채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현재 경제 이슈를 바탕으로 전달해 참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김경진 사회공헌부장은 "전북은행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금융전문가의 맞춤식 방문교육과 금융시장분석 등 현재 이슈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미래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금융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힘쓰는 등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전북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1사1교 금융교육, JB Dream up 금융투어, 진로코칭캠프, JB 인문학강좌, 3D 프린터 지원사업 등 도내 미래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박경숙 신임 전북 농기원장 내정

박경숙(57·사진)신임 전북도 농업기술원장이 내정됐다.

박 신임 원장은 무주 출신으로 성신여대 일반대학원을 졸업하고 1987년 공직이 입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개공, '익산 제1호 수소충전소' 건설 본격화

전북개발공사와 익산시는 29일, 지난 3월 26일 체결한 수소충전소 건설 위·수탁협약에 따라 추진중인 '익산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익산시 제1호 수소충전소'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익산시 석암동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기존에 운영중인 LPG가스 충전소 부지에 구축되며, 하루 50대 이상의 수소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수소충전소가 완주군에 1개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용불편과 관련한 도민들의 민원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충전소를 신속히 구축해, 수소차를 이용하는 도민의 편익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미세먼지 없는 청정 전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소충전시스템 설치업체는 지난 18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절차를 진행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오는 10월부터 공사에 착공,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모항해나루 가족호텔도 '여름 특수?'

부안 모항 해수욕장 정부 이용권장 해수욕장 선정

모항해나루 가족호텔 전경.

부안군 모항 해수욕장이 지난 22일 발표한 정부의 이용권장 해수욕장 25선에 선정됨에 따라, 모항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모항해나루 가족호텔도 여름 특수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모항해나루 가족호텔은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에서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 전라북도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2012년 개관해 현재 ㈜비지에이치코리아에 전문위탁운영 중이다.

특히, 모항해수욕장 바로 옆에 위치한 호텔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자연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객실 전망과 전객실 오션뷰가 가능해, 가족단위 고객들의 휴양시설로 인기가 높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단체고객이 감소해 다소 주춤했으나, 공사측에서는 이번 모항해수욕장의 정부 이용권장 해수욕장 25선 선정을 계기로 영업상의 반등을 기대해 보는 분위기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객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코로나19 걱정없이 모항해나루 가족호텔에서 모항 해수욕장과 변산반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가족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약으로부터 꿀벌 보호… 화분매개충 농약독성시험법 확립

농진청, OECD 화학물질 시험 가이드라인 바탕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으로부터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화분매개충 농약독성시험법'을 확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위해성 평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농촌진흥청은 2015년부터 화분매개충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를 수행했으며 꿀벌과 뒤영벌 관련 최신 시험법을 확립해 왔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물질 시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내 시험환경에 최적화된 화분매개충 독성시험법 6개를 확립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꿀벌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엽상잔류독성시험 등 2개의 시험법이 독성평가에 활용됐으나, 농촌진흥청 연구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꿀벌 성체 만성(10일) 독성시험법 ▲꿀벌 유충 급성 독성시험법 ▲꿀벌 유충 만성 독성시험법 ▲꿀벌 반야외시험법 ▲서양뒤영벌 급성독성시험법(접촉) ▲서양뒤영벌 급성독성시험법(섭식)을 추가로 확립했다.

농진청은 독성시험법의 확립을 통해 꿀벌 애벌레부터 성체까지 단계별로 농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또한 최근 토마토 농가 등 시설원예작물 수정에 널리 활용되는 서양뒤영벌의 독성시험법 확립으로 농업인에게 필요한 뒤영벌의 농약안전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농약 등록 단계에서 꿀벌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농약으로 인한 양봉 농가와 화분매개충 사용 농가의 피해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농진청은 꿀벌 독성시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최신 시험법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서비스 질은 올라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2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호흡기알레르기내과(68병동 37병상)에서 운영해오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 병동을 소화기내과(62병동 42병상) 정형외과(82병동 38병상) 외과(45병동 43병상) 등으로 확대, 4개 병동 총160병상을 운영에 들어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전북대병원은 호흡기전문질환센터(68병동)에서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간호인력 확보와 시설 투자를 통해 병상을 확대해왔으며, 환자만족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다 많은 입원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시설을 보완했으며 간호 및 간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또한 환자가 보호자 없이도 안정적으로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병동환경 개선과 위생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병원시스템을 보완했다.

/김윤상 기자